

12~14세기 랑민주의시가의 사상예술적특성

리 정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학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김정일선집》 제16권 증보판 160~161페이지)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고전문학작품들가운데는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그려낸 사실주의적작품도 있고 의인화와 확대, 과장의 형상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을 환상적으로 그려낸 랑만주의적작품도 있다.

12~14세기에 창작된 랑만주의시가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당대 사회의 포악무도한 집권자들을 단죄하고 이들을 정계에서 내쫓아야 하며 인재등용정책을 변혁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

박효수의 《홍해 송라로 가는 길에서 동해의 파도를 보며》는 그 대표작이다.

회오리바람 세차게 휘몰아쳐
검푸른 바다 사납게 노하고
하늘도 파도도 한데 어울려
캄캄한 어둠속에 몸부림친다

은빛산 일만봉우리되어
파도는 키돋움하며 치솟고
백이런가 천이런가
우르릉 광광
우리소리 울부짖는다
...

하늘나라 똥똥 뜬다
지축도 움썩움썩
룡왕은 앉은 방아 찧는구나

룡궁이 기울어진다고

물나라 신하들 정신없이 헤덤비고
잔고기때 살길 찾아 헤매나니
이 못된짓 그 누가 저질렀나
곤어인가 고래인가
큰고기 짓이노라

시인-서정적주인공은 무신정변으로 소란해진 당대 봉건사회를 《하늘도 파도도 한데 어울려 캄캄한 어둠속에 몸부림》치는 자연의 광란에 비유하면서 조정의 문란한 현실을 《물나라 신하들 정신없이 헤덤》빈다는것으로 의인화하여 《곤어》며 《고래》의 폭압정치를 비판하고있다.

무신집권자들의 《못된짓》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시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인은 한결음 더 나아가 무신집권자들의 폭압을 없애려면 이자들을 조정에서 내쫓고 그 후파를 가셔야 한다고 격조높이 웨친다.

무신집권자들의 폭압정치를 강렬히 부정하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비판정신은 시의 후반부에 와서 고조되고있다.

어이하면 얻을수 있으랴
저 하늘의 보검을
내 한번 휘둘러서
못된 고기무리들 눈썰듯 하리라

오 그때면 동해는
마전한 비단처럼 정가롭고
래양은 또다시
밝은 빛을 뿌려주리니

이무기도 새우도 게들도
모두 기쁨에 겨워
자유로이 노닐리라
성스러운 은덕 마음껏 누리며

넓은 바다에서 꼬리치며 즐기리라

《하늘의 보검》을 얻어 온갖 《못된 고기무리》들을 눈썰듯 하려는 시인의 비판적기백은 《이무기도 새우도 게들도 / 모두 기쁨에 겨워 / 자유로이》노니는 새로운 현실을 바라는 서정적주인공의 미학적리상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여기에 바로 이 시의 량만주의적지향이 있고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이 담겨져있다.

이 시는 사상적경향성으로 보아 《해좌칠현》의 대표적문인이었던 리인로의 시 《세상살이 어려워라》와 《해좌칠현》의 문인들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김극기의 시 《취해서 부른 노래》와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있다.

《해좌칠현》의 중심인물이었던 리인로는 시 《세상살이 어려워라》에서 자신의 불우한 생활처지로부터 무신집권자들을 포악한 짐승무리로 단죄하였다. 시에는 시인자신의 울분이 직접적으로 세차게 표현되어있으나 락망하거나 비판하는 그늘진 표현은 없다.

작품의 시상은 격조높이 울리고있으며 수사학적물음과 극도로 예리화된 비유법으로 현실을 부정한 몸부림치는 시대의 《반항아》-시인자신의 걱정이 맥맥히 굽이치고있다.

...

내 일찌기 하늘문을 두드려
은하수 끌어내려다가
이 세상 더러운것들
말끔히 씻어버리자 하였더니

분하여라 비록 어리석은 뜻일망정
내 한번 시험조차 못해보고
심산속에 갇히여 숨어산지
그 몇해나 지냈던가

나의 거문고소리

한평생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짐승처럼 포악한 무리를
무찔러 없애는 사람도 없었네

갈길 험해라
내 노래 슬퍼라
칼집에 든 두자루 칼은
분하여 펴며 울기만 한다

작품에서 시인-서정적주인공은 무신통치배들을 피하여 심산속에 갇히여 숨어 산 지난 몇몇 해를 가슴아프게 회고한다. 현실은 짐승처럼 포악한 무리들에게 짓밟혀 학정과 살육으로 더러워졌건만 그것을 쓸어버릴 사람은 없다. 시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자신을 두자루의 칼을 잡은 시대의 《반항아》로 자처하면서 다음부분의 시련들에서 자기의 리상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것으로 대답한다.

내 꼬부라지고 비뚤어진것을
펴고 바로잡아 화살처럼 만들리라
불어난 강물 유리처럼 맑으니
한점인들 더러운것 남길리 있으랴

사람의 간을 말리워먹는 권세있고 잘사는 무신통치배들을 쓸어버리는것만이 《사람노릇을 하는》길임을 깨달은 시인은 사회의 온갖 꼬부라지고 비뚤어진것을 곧추 펴고 바로잡을 투쟁을 선포한다.

김극기도 시 《취해서 부른 노래》에서 산천초목을 불태우고 재난에로 몰아넣는 《여섯마리의 자라》와 《아홉마리의 까마귀》에 대한 옛 전설에 의거하여 폭정을 일삼는 무신통치배들을 비난하면서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있다.

때때로 분노를 참을길 없어
칼로 땅을 치며 크게 웨쳐보나니
어느때면 거센 바람을 타고
사나운 물결 헤쳐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편안히 살게 하라
...

무신통치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참을길 없어 몸부림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은 《칼로 땅을 치며》 당대 현실을 부인하면서 투쟁할 때를 기다리는 시대의 《반항아》로 나타난다.

거센 바람을 타고 사나운 물결 헤가르며 《여섯마리의 자라》와 《아홉마리의 까마귀》를 낚을 서정적주인공의 지향은 무겁고도 비통한 감정을 안고있으나 자신이 택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상으로 하여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랑만주의시작품들은 조정의 악질관료들을 내쫓고 불공평한 인재등용정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강렬히 주장하고있다.

12~14세기에 창작된 랑만주의시가의 사상에술적특성은 다음으로 현실에서 환기되는 서정적주인공-시인자신의 감정정서적지향을 여러가지 수법을 활용하여 그리고있는것이다.

우선 《무릉도원》에 대한 사상적지향은 리인로의 시 《지리산에서 놀며》, 진화의 시 《도원의 노래》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인간세계로 주어지기도 하고 성사달의 시 《박연폭포》, 안축의 시 《태백산》, 권근의 시 《금강산》 등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세계에 대한 신비한 황홀경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시 《지리산에서 놀며》에는 행복한 《무릉도원》을 찾으려는 시인의 이상이 환상적인 세계로 그려지고있다.

《해동야서》에 수록되어있는 리인로의 시 《권생이 진짜 도원을 찾은 이야기》에는 비옥한 땅이 일망무제로 펼쳐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밭갈이하고 교육도 받는 《무릉도원》이 그려져있다.

즉 봉건적착취와 억압속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의 소박한 념원을 예술적과장과 허

구의 힘을 빌어 실현시키고있다.

김극기의 《취해서 부른 노래》는 《해좌칠현》시인들이 도달한 사상적높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랑만주의작품이다.

시인은 처음부터 당시 무신통치배들을 전설적고사에서 빌려온 자라와 까마귀에 비유하면서 이 어지러운 무리들을 무찌를 높은 리상을 격조높이 웅청다.

낚시질하면 바다우의
여섯마리 자라를 낚고
활을 쏘면 해속의
아홉 까마귀를 떨구리
...

능히 뚫어진 하늘도 막고
가로막힌 땅도 뚫고가리
...

어느때나 거센 바람을 타고
사나운 물결 헤쳐나가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리

그대는 보게나
룡연각우에 걸려있는
큰 공적 이룩한 사람들의 초상을
그중 절반은 글읽는 선비요
그중 절반은 싸움하는 무사로세

작품에는 통치배들에 대한 강렬한 부정의 사상, 상징적수법, 극도의 과장법이 리용되였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이 시는 리인로의 《갈길 험해라》와 함께 랑만주의창작방법의 전통을 비교적 잘 살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우의 작품들에서는 암흑상을 가차없이 폭로조소하고 그것을 개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자기들의 리상에 비추어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열렬한 갈망으로 미래의 행복한 꿈을 그리고있다.

물론 당시 창작가들의 시대적 및 세계관적제약성으로 자기들의 리상을 더 진척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무릉도원》에 대

한 사상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조정의 그릇된 정사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서있지 않은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국토방위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이 랑만주의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오세재의 시 《창바위》는 이러한 주제에 바쳐진 대표적인 작품이다.

북쪽 령우에 곧추 선 돌
사람들이 창바위라 부르네
신선이 사는 곳을 불쑥 떠받고
해지는 하늘끝을 마구 찌른듯

번개불에 자루를 맞추고
서리 내려 칼날을 씻은듯

저런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
극악한 원쑤를 물리쳤으면 ...

작품에서 시어는 극히 과장되고 확대되어있으며 랑만주의적으로 채색되어있다. 시상은 단순하나 국력을 강화하여 극악한 원쑤를 단숨에 물리칠 랑만주의적지향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정추의 시 《밤에 우는 개구리》에는 외적의 침입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생활과 나라를 걱정하는 시인의 가슴아픈 심정이 잘 드러나있다.

시인은 국력을 강화하여 원쑤를 물리칠 자신의 리상을 랑만주의적으로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

어이하면 억센 힘으로
하늘의 운수를 끌어잡아서
우리 병사들 원쑤 무찌르고
칼과 갑옷을 씻게 할가

시인의 리상은 많은 경우 현실생활에 기초하고있으나 대체로 랑만주의적으로

노래되고있다.

이밖에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이 봉건 통치배들의 부화방탕한 생활로 깃뺏힌 울분의 감정을 랑만주의적으로 그린 작품도 있다.

12~14세기에 씌여진 랑만주의시들을 보면 그 창작수법에서 과장과 비유의 수법을 많이 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랑만주의시작품들은 시상의 웅건함과 시어의 강한 비유, 대조 혹은 과도한 형용사의 활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시인의 주관적리상으로 조명된 《태세》 혹은 《환상세계》에서 그려내는 고유한 창작수법을 적용하고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벌써 강한 비유와 과장의 수법을 잘 활용하여 우수한 시들을 창작하였다는것은 우리의 민족시가유산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과장과 비유의 수법은 극도로 예리화되고 확대되어있으며 대부분 서로 밀착되어 씌여지고있다.

령우에서 손을 들면
북두칠성 부여잡고
은하수에 드리워
발이라도 씻을듯
(김극기의 시 《대관령》에서)

산은 높아 하늘끝에
거의 닿을듯
중은 흰구름만
마주보고 앉아있네
(정지상의 시 《등고산》에서)

발밑에 구름 날아
학을 타고 노니는듯
자드락질 곧두서서
하늘로나 오르는듯
...
(안축의 시 《태백산》에서)

사람이 자유롭기

새만 못할가
우리의 어느날이나
숲아래 가서 살라

다만 벽우에 걸린
푸른 칼날이
울분을 못참아서
밤마다 울고있다
(정몽주의 시 《둔촌》에서)

우의 시구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사학적과장과 극도로 예리화된 비유의 수법을 밀착시켜 시상을 확대하는 랑만주의적수법은 시적묘사대상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시적기백을 일층 강화할뿐아니라 시인의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된 미래에 대한 지향을 더욱 절절한것으로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랑만주의적형상수법은 때로 사실주의적시창작에 적절하게 쓰이게 되는것이다.

랑만주의시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리규보의 서사시 《동명왕》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고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그 이후시기 김시습의 랑만주의시문학에서 훨씬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랑만주의시문학은 시인 자신들의 세계관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당대 사회를 개혁할 사상을 내놓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도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많은 경우 불우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자신들의 처지로부터 생겨난 울분과 당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을뿐 력사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립장과 리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2~14세기 랑만주의시문학은 당대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악질관료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 격조높은 시어의 선택과 진보적사상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문학에서 자못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